

불륜과 무관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촬영해 방송, 기사삭제 및 유감표명으로 조정성립

A 방송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불륜 사건을 다루면서 신청인의 사업장 외관을 촬영해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무단으로 방송하였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신청인을 불륜의 당사자로 오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 방송사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하였고, 신청인의 사업장이 내연 여성의 직장인 아남을 알리는 자막과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노출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신청인의 사업장이 방송에 등장한 곳을 알아보고, 네티즌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점을 주목하였다. 피신청인 역시 이에 공감하여 사과와 함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기상청 장비 도입 관련 의혹제기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B 신문사는 기상청이 스위스 기상청의 장비와 동급인 컴퓨터 기종을 훨씬 비싸게 구매하여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하면서, 납품업체와 유착의혹이 있으며 사실은폐를 위해 거짓자료를 배포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상청은 해당 장비는 스위스 기상청이 도입한 컴퓨터 대비 16배 이상 성능이 높고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동종 컴퓨터의 가격과 비교해도 그 비용이 적절하고, 업체와의 유착이나 거짓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B 신문사는 저렴한 컴퓨터를 가진 스위스 기상청이 예측 정확도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술력 개발로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적 보도라고 주장하였다.

중재부는 컴퓨터의 사양·가격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르고, 유착의혹 및 거짓자료 배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권유하였다. 이를 언론사가 수용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BOOK

책 리뷰



마음가면
브레네 브라운 저.

완벽하지 못해 불안한 이에게 전하는 힐링메시지

지난 22일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 후보였던 김대훈 선수가 8강전에서 패배한 뒤, 상대 선수의 두 팔을 번쩍 들어 축하 인사를 건네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세상이 승자에게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처럼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도堂堂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면 <마음가면>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현대 대중심리의 최고 권위자 브레네 브라운이 <마음가면>을 통해 '취약함'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취약해진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공격당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의미인데, 저자는 취약한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마음가면>을 쓴다면, 수치심,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고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보는 것은 어떨까? 오히려 수치심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어떠한 일에도 후회가 남지 않으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인과의 관계 또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